

유기견 21마리, 새로운 가족 품으로

남원도시재생 한마당 개최

임실군, 임실N치즈축제 기간 유기 동물 입양·반려 산업 홍보관 운영 성과

임실군이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열린 임실N치즈축제 기간에 운영한 유기 동물 입양 및 반려 산업 홍보관이 관광객들의 큰 호응 속에 가족 잃은 강아지들에게 새 가족을 찾아주는 데 큰 역할을 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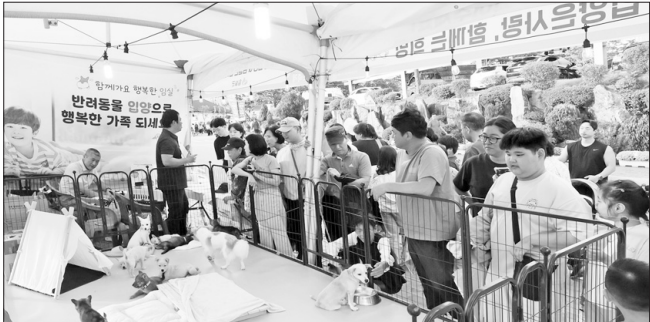
군은 축제 기간에 유기견 입양 부스와 임실군의 주력산업인 반려 산업 홍보관을 운영한 가운데 총 21마리의 유기견이 새로운 가족을 만나며, 생명 존중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했다.

축제 개막 첫날부터 유기 동물 입양 부스에는 많은 관광객이 방문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입양 희망자가 예상 보다 많아 현장 열기가 뜨거웠다.

축제 기간인 5일간 진행된 행사는 당초 입양 대상이었던 2개월령 강아지 14마리는 행사 3일 만에 모두 입양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임실군 유기견 보호소에서는 6개월령 이상의 강아지와 모견을 대상으로 입양 홍보를 실시해 총 21마리의 유기견이 새로운 가족을 만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유기 동물 입양 부스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교감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돼 큰 호응을 얻었다.



임실군이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열린 임실N치즈축제 기간에 운영한 유기 동물 입양 및 반려 산업 홍보관이 관광객들의 큰 호응 속에 가족 잃은 강아지들에게 새 가족을 찾아주는 데 큰 역할을 해냈다.

또한, 현장에서 촬영한 필름 사진을 가족 단위로 선물하는 이벤트도 진행돼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이끌었다.

홍보관에서는 임실군 주요 반려 시설인 오수반려누리, 오수의견 국민여가캠핑장, 펫 추모공원을 소개하고 안내 리플릿을 배포하며, 현재 추진 중인 세계명견테마랜드 조성사업도 함께 홍보했다.

군은 현재 100여 마리의 유기견이 보호되고 있는 시설의 열악한 환경을 개

선하기 위해 총 20억 원의 사업비로 관리동과 사육동 등 2개 동 규모의 '임실군 동물보호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심 민 군수는 "많은 관광객들이 유기견 입양에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따뜻한 변화를 만들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한 반려동물 친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전충영 기자

남원시는 오는 10월 2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일원에서 주변 상권 활성화와 연계한 남원도시재생 한마당 2025 Urban Wood Festival을 개최한다.

이번 한마당은 '나무, 도시를 잇다'라는 슬로건 아래 시 동문밖마을 도시재생 특화재생사업의 핵심 행사로 마련되었으며, 도시재생 사업의 추진 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주민 주도의 참여를 통해 지역 공동체의 활력을 되살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참여 주제인 지역 주민들이 직접 기획과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도시재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체험형 축제로 구성 △목공 체험 한마당(17개 체험 부스)을 통한 DIY목공예, 목공소품만들기, 목공놀이터 등) △수업 결과물과 목공예 창업 작가 전시 △도시재생·목공예 미래 워크숍(같이, 웃길, 키워) △주민협의체 성과공유회 및 창업 아카데미 발표 △지역 주민 연계된 문화예술 공연 등이 다채롭게 마련된다.

특히, 수료생이 직접 제작한 상품과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사업 신청·접수

순창군 육천장학회(이사장 최영일 순창군수)가 하반기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사업 신청을 10월 15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

순창군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사업은 민선8기 순창군 보편적 복지정책의 핵심사업이다. 대학 생활비와 주거비 등 교육 관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인재의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해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순창군 출신 대학 재학생(만 40세 미만)으로, △순창 관내 초·중·고교 졸업, △관내 중학교 졸업 후 관외고등학교 졸업, △고졸 검정고시 합격 후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해당된다.

단, 방송통신대·사이버대·학점은 현재 및 정규학제 초과 재학생 등은 제외된다.

지원시기는 대학 1학년 2학기부터 4학년 2학기까지 최대 7학기이며, 4년제 초과 대학은 최대 7학기까지 지원되며, 지원금액은 학기당 1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신청은 본인 또는 부모가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며, 접수 시 신청서와 재학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업무협약 체결

순창군은 지난 15일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과 농어촌 지역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지원과 활동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최영일 순창군수, 채명숙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사무총장을 비롯한 양 측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군수실에서 진행됐다. 협약은 농어촌 지역 청소년들에게 보다 다양한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간 청소년 활동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제



청소년 교류 및 탐방활동, △진로탐방 활동, 대학탐방활동, 진로드림캠프 등 청소년 체험활동 △청소년 육성 및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 연구개발 노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 등

남원자봉센터, 청소년 기획 프로그램 따뜻한 위로 전달

남원시자원봉사센터는 오는 11월 17일 청소년 기획프로그램 활동의 마지막으로 두빛나래 동아리에서 덕과면 솔바람마을 어르신을 대상으로 어르신께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나누며 따뜻한 위로를 전달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부터 10월까지 관내 4개 청소년 동아리와 손잡고 지역사회 이웃을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 사업은 청소년이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함으로써 봉사의 의미를 체득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강화하고자 기획되었다.

이에 남원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동아리는 뜨개공예로 만든 꽃 모양 '사랑의 안식키링' 100개를 제작하여 치매 어르신의 실종예방을 위한 상징적인 물품으로 사용되도록 남원시 보건소에 전달할 바 있다.

또한 남원중학교 버터플라이 동아리는 장애인복지시설 '평화의집'을 방문해 팔콘과 슬라시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간식 부스'를 운영했으며, 남원시청소년수련관 장이봉사단은 동충동 어르신을 위해 손수 쿠키와 캘리그래피 부채로 구성된 세트 60개를 제작해 전달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취·창업 지원 위한 직업교육과정 운영

순창군은 군민의 취·창업 기회 확대를 위해 하반기 직업교육훈련 과정으로 △퍼스널컬러 전문가 2급 과정 △큐브지도사 2급 과정 △웃음지도사 과정 총 3개 과정을 개설하고,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지속 운영되며, 군민들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업을 탐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신청은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교육 후 취·창업 의사가 있는 군민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모집기한은 10월 28일까지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군민은 순창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관련 서류를 구비한 후 군청 경제교통과 일자리창출팀(063-650-1313, 1337)에 방문 접수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미래 모빌리티 기술 체험 기회 제공

남원시, SW미래채움 전국 청소년 모빌리티 메이커스레이싱 대회 개최

남원시가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남원종합스포츠타운 내 배드민턴장에서 SW미래채움(전북) 전국 청소년 모빌리티 메이커스레이싱 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최하고, SW미래채움 전북센터와 대구센터가 공동 주관하며, 전북특별자치도와 남원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등이 후원하는 행사이다. 더불어 '2025 남원 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과 연계해 미래 모빌리티와 첨단 로봇 기술이 융합된 종합 기술 축제로 진행된다.

총 22개 팀, 54명의 전국 초·중·고등학생이 이번 대회에 접수했으며, 이

중 초등부 12개 팀(34명)과 중·고등부 10개 팀(20명)으로 구성, 초등부는 1일 과정으로, 중·고등부는 1박 2일 집중 프로그램으로 운영, 맞춤형 교육과 체험이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 학생들은 팀 단위로 RC카를 직접 조립하고 코딩하여 장애물 레이싱 경기에 출전, 이를 통해 소프트웨어 코딩 역량뿐만 아니라 협업 능력과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미래 모빌리티 기술에 대한 체험 기회 제공과 더불어 첨단 기술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기블' 창업자 차누 초청 청소년 토크콘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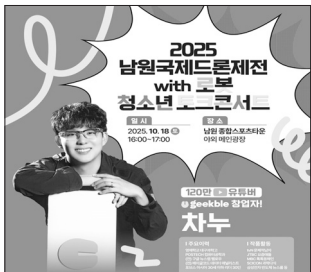
남원시는 오는 18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남원 종합스포츠타운 메인광장 야외 무대에서 '기블' 창업자 차누와 함께하는 청소년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미래 사회의 핵심 역량인 도전 정신과 창의성을 주제로, 청소년들에게 실제 창업자의 경험을 통해 도전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첨단 AI 기술을 활용한 창의 체질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행사는 총 3부로, 1부는 '솔모없는 도전은 없으니까'를 주제로 한 강연, 2부는 '도전에 대한 자부심'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 토크콘서트, 3부는 AI를 활용한 '나만의 발명품 이미지 만들기' 체험이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2025 남원 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과 함께 연계 개최되며, 지역의 미래 기술 교육 활성화와 시민



참여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엔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